

투데이 칼럼

삼년지애(三年之艾)

사 무척장 재직 만 3년이다. 태어나고 자라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여기서 다녔으니 전북사람이다. 지금부터 23년전인 1993년 7월, 민주당 당직자로 정치계에 입문하여 지난 2013년 민주당합당 시절에 중앙당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북도당 사무처장으로 고향 남새를 맡고 있다.

그 사이에 우리 당(黨)은 '민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부르고 있다.

전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년 지방선거와 3년차인 2016년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

총선거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대참패이다. 전국적으로는 제1당이 되었지만 46만여명의 전북당원에게 송구스런 모습을 보여줬다.

수 많은 당원의 성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처참한 성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특히 지난 3년간의 전북도당 생활을 돌아봤다.

삼년지애(三年之艾)라는 말이 떠오른다. 삼년지애(三年至艾)의 뜻이 다르다. 삼년지애(三年之艾)는 맹자의 '이루편'에 나오는 말이다. 3년동안 숙성한 쑥을 말하는 것으로 무슨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랜 기간 숙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원문은 '有七年之病(유칠년지병)에 求三年之艾也(구삼년지애야)'이다. 어느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흠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어머니가 병이 들어 뜰겨놓자 아들은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한다. 아들의 간호에도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심해졌다. 이때 지나가던 스

님이 "3년 묵은 쑥(艾)을 다려 드리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자 아들은 바로 3년 묵은 쑥을 찾으러 나섰다. 그러나 쑥은 1년생 풀이라서 3년 된 쑥을 찾기는 불가능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3년 묵은 쑥을 찾은 지 7년째, 어머니는 병세가 악화되어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민약에 아들이 3년 묵은 쑥을 찾을 것이 아니라 스님의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쑥을 뜰어 3년간 말렸더라면 노력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어머니 병을 쉽게 고쳤을 것이다. 아들의 7년은 열심히는 살았지만 헛고생을 한 꼴이다. 맹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천하(天

下)를 얻고자 하는 군주(君主)가 있다면 칠년(七年)의 병(病)을 다스릴 삼년(三年)된 쑥(艾)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마음(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큰일을 도모하려면 반드시 긴 안목을 가지고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한다'는 말이다.

정당(政黨)의 목적은 정권(政權)을 잡는 것이다. 특히나 지금처럼 경제파탄과 불안한 민생 그리고 계층간 차별이 심화되어지는 사회에서는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더민주 도당(道黨)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당이 변화해야 한다. 삼년지애(三年之艾)의 마음을 가지고 지역위원회 개편을 통해(수권정당, 민생정당) 도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해야 한다... 그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재창당 수준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 난 것이 내년 이면 했수로 3년이다. 이제 숙성중인 도민들의 열망을 담아내야 한다.



김경봉

前,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독자제언

여성 안전한 귀가길 위해 순찰강화

최근 "강남역 화장실 문자마 살인사건" 발생으로 이전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어 여성안전에 대한 보호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발생 사건들이 조현중(정신분열증의 일종)환자에 의한 문자마 강력범죄 사건으로 분석되면서 정신질환자 보호관리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안전한 여성 귀가길의 근본적 해결책을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우리경찰은 2016. 6. 1~8. 31까지 여성안전 특별치안활동 추진기간을 설정하여관내 주민들의

제보를 수렴하면서 스마트 국민제보 앱상 "여성불안 신고" 코너를 신설하여 국민들의 범죄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진단팀을 구성한 후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을 체계화 전문화하여 여성대상 범죄우려 지역에 순찰강화 및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문자마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체계적으로 협의하여 정신질환자의 보호조치, 응급입원등 적극적으로 현장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장용길 전주완성경찰서 서신지구대 경위

사위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독자제언

112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 불러

위급한 범죄나 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112는 긴급전화인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범죄 하면 생각나는 번호인데 잦은 허위, 장난, 시비성 욕설 등의 신고전화로 인해 경찰력 낭비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신속히 출동하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를 낳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로 인해 매년 1만여 건 이상이 112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고 각종 범죄 발생시 경찰이 빠르게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를 제지하여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구조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찰은 112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범죄 상황으로 보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투입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 경우 허위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따라서 범죄 신고와 관련이 없는 경찰 업무 민원전화는 182번, 공공행정에 관한 포괄적 민원안내에 대해서는 110번, 불법주차·소음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에 대한 민원은 시청이나 군청 민원센터 120번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112신고전화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생명과 같은 전화이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나와 내 가족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허위 장난신고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예리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구독 · 광고문의 ☎ 288-9700

사설

호남 KTX 개통 1주년에 부쳐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 지 이제 1주년이다. 호남고속철도를 개통한 후 지역사회에 변화가 있다는 평가이다. 우선 전북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나 역세권에 조금은 활기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로해서 전북지역에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본보는 전북 방문객들의 KTX 선호도가 높다는 소식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KTX에 대한 방문객들의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는 생각에서였다.

그같은 주문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1주년을 맞는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다. 방문객 증가 현상을 지역 발전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과 관련해 그 무엇이든 시도해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KTX 선호도 급증과 관련해 우선 생각나는 것은 전북 관광이다. 관광사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닿으면 한다. 머리를 맞닿으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관광 전략이 마련되리라는 기대이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1주년을 맞

아 주목할 대상은 밝은 쪽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동안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해도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그 변화는 미미하다.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초 국토부와 도내 해당 지자체들은 익산역과 정읍역의 개통을 앞두고 역사 일대에 복합쇼핑몰을 들어서게 하겠다는 구상을 말했다. 역을 중심으로 반경 3km를 상업지와 주거지가 결합한 역세권으로 묶어 재개발사업을 벌이겠다고 했던 거 말이다. 그래서 도민들은 기대가 컸는데 그게 아직은 청사진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아직은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그리고 전북도는 호남고속철도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할 일이 있다. 호남고속철도가 주는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KTX 측에 계속해서 증편 요구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주문은 도민들이 바라는 바이므로 전북도는 KTX 증편과 관련해 실효 발휘를 해야 한다. 그 성취를 위해서는 전주시가 보여준 최근의 성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우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천만 명에 달하고 있으니 말이다. 일반이든 관광객이든 KTX 선호도가 높다면 KTX 측에 증편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누리예산 문제 빨리 해결돼야

누리 예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야겠다. 누리 예산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하는데 시일을 끌고 있으니 문제이다. 저번에 감사원은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누리 예산 편성 여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중에는 전북 도교육청도 포함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감사원은 다른 예산의 성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누리예산 편성 능력이 있다고 지적했었다. 그래서 본보는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었는데 오늘날 그 귀추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

김승환 교육감과 어린이집 연합회가 누리예산 문제 때문에 몸싸움을 벌였는데 그것은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 도의회 정례 후 몸싸움이 크게 벌어져 부상자가 발생하고 김 교육감은 목살까지 잡혔는데 어찌다가 사태가 그 지경까지 가아졌는지 참담한 마음을 억제하기가 힘들다. 그것은 갈데까지 가버린 막장 드라마와 같은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추태를 보이면서 무슨 어린이 교육 예산을 운용할 수가 있던 말인가. 예산에도 쪼였던 말이지만 다시

반복하는데 도교육청의 말대로라면 도교육청이 재정 적자의 위기로 내몰린다는 현 정부의 탓이 크다. 중앙 정부가 누리 예산을 전액 각 시도교육청에 누리 예산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생각한 풀과구는 긴급 편성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약발이 다했다고 거듭해서 말했던 터에 감사원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을 때 교육감을 비롯 해 고위 관계자들은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래도 도교육청이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경악스럽기 그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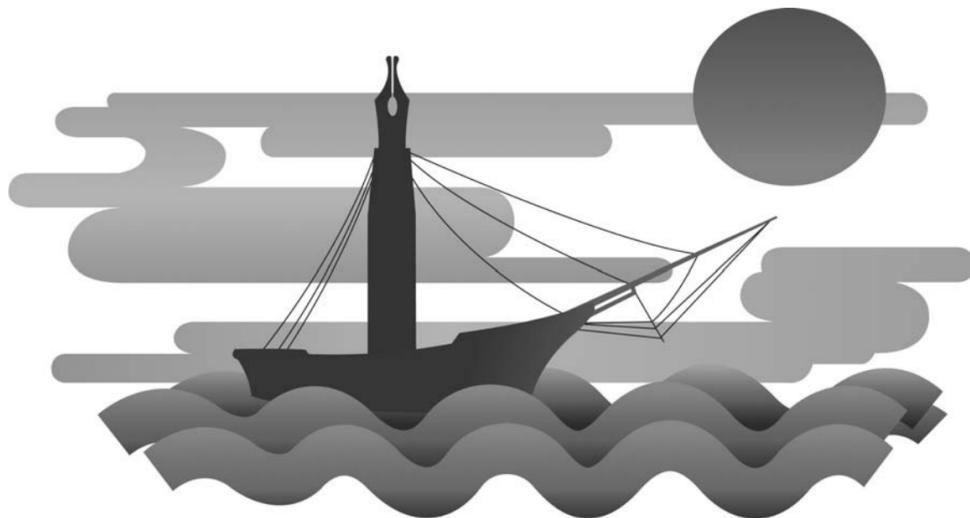
도교육청은 잘 판단해야 한다. 진퇴양난의 교통 속에서 죽을 맛이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도내 어린이집 1620개소의 2만2천여 철부지 어린이들의 얼굴을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다. 실직자로 내몰릴 1800여명의 보육교사의 심정도 헤아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전북 교육의 최고 수장이 명예스럽지 못하게 목살잡이를 당하면서까지 그레이트할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